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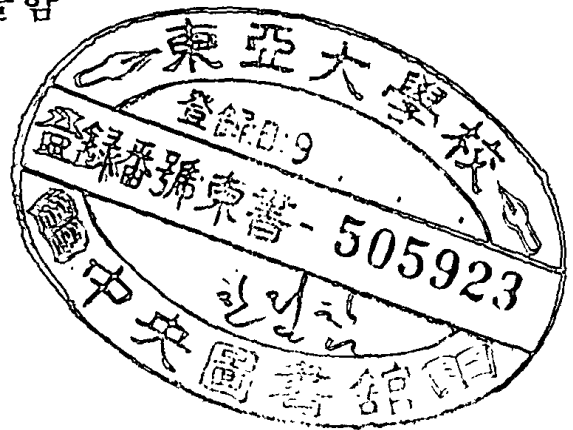
8/3, 7
김4제

제주도 풍수설화 연구

지도교수 류 종 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1993 년 6 월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9-10338

김 영 석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4
3. 연구 방법	5
II. 풍수설의 설화 수용 양상	7
1. 풍수설의 형성 배경	7
2. 풍수설의 설화적 수용	11
III. 제주풍수설화의 유형	14
1. 明堂設定 원인별 유형	14
2. 明堂設定 결과별 유형	24
3. 仲介者別 유형	35
IV. 제주 풍수설화의 서사구조	42
1. 구조적 특성	42
2. 사회사적 의미	49
V. 결 론	59
* 參 考 文 獻	62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설화는 역사적 자료로서 보다 역사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설화 속에는 그것을 향유하는 민중의 사고와 의식이 표현되어 있다. 설화는 집단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 전체가 가지는 의식과 삶의 양상, 즉 집단 전체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을 의미한다.

설화는 역사적이며 사실적이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나 지리적 表識, 혹은 특수한 에피소드와 관련된 공동체의 心像 속에 구체적인 聯想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와 관련된 설화는 집단의식이 表象된다.¹⁾ 그러므로 풍수설화를 통하여 한 집단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주도는 하나의 민족집단도 정치적 공동체도 아니지만 지리적, 역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공동체로서 고유의 설화를 갖고 있다. 오랜 생활과정에서 형성된 많은 설화들이 本土[陸地]와 공통된 것을 가지면서도 제주적 생활 양식과 특수한 풍토적 역사적 조건 아래 제주 특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엔 남달리 영위된 습속이나 신앙과 향토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마련된 제주도민의 의식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1) 이상일 외, 민담학 개설, (서울; 일조각, 1982), p.50.

과거 제주의 선민들은 불우한 입지성과 역사성으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살았었다. 불우했던 생활 여건 속에서 민중들이 어떤 의식을 지녀 살았는가를 밝혀 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실상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구비문학을 통하여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비친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²⁾

풍수설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풍수설화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하거나 하나의 유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 풍수설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중택의 “풍수설의 수용 양상 연구”³⁾는 풍수설화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풍수설의 수용 양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내용 고찰보다는 유형 분류에 치중한 듯하다. 신월균의 “한국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⁴⁾은 유형별로 세분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설화의 구조와 의미를 규명한 것은 돋보이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립하는 데는 미흡한 감이 있다. 손정희의 “한국풍수설화 연구”⁵⁾는 전승층의 관심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풍수설화 전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설화의 내용만을 문학작품 분석방법에 의해 비교하였으므로 대상의 제한적 선택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장장식의 “한국의 풍

2) 김열규 주옥, 민담학 개론, (서울; 일조각, 1982), p.3.

3) 강중택,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4) 신월균,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5) 손정희, 한국 풍수설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수설화 연구”⁶⁾에서는 수용자에 관한 이야기· 풍수에 관한 이야기· 명당에 관한 이야기로 삼분하고 이것을 다시 7개의 하위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분류방법은 지금까지 풍수설화의 유형분류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풍수설화의 작품 내용을 분석하는 데 소홀한 감이 있다.

한편 풍수설화를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연구한 성과물은 극소수이며 단편적이다. 예컨대 현길언의 “풍수[斷脈]설화에 대한 일 고찰”⁷⁾같은 것은 풍수설화에 나타난 제주문화의 설화적 기층 접근을 위한 시도로서 설화의 구조를 주체자와 객체자의 관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제주도 풍수설화 연구의 기초 단계에 머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길언의 “고종달[胡宗杲]型 설화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의식 구조”⁸⁾에서는 제주도민의 외세와의 저항정신과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주도민의 의식 구조를 심층분석하는 데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제주도의 풍수설화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식을 추출함과 동시에 제주도 풍수설화가 갖는 서사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 속에 내재한 의미와 상징들을 규명함으로써 제주도 풍수설화의 제 특성을 추출하고 그 설화문학적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장장식, 한국 풍수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7) 현길언, 풍수「斷脈」설화에 대한 일 고찰, 한국 문화인류학 10집, (서울; 문화인류학회, 1978).

8) —, “고종달「胡宗杲」설화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구조”, 한국문화인류학 9집,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2. 연구 범위

풍수설은 원시신앙, 고유사상, 유교, 불교, 도교 등 우리 민족의 제 사상들이 다양하게 융해 접목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다. 풍수설이 구비문학에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민족의 기층 사상이 되었고 그 영향이 지속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풍수설은 너무나 난해하고 형이상학적인 이론 때문에 풍수나 지사끼리도 이론의 합일을 보지 못할 만큼 개별화한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⁹⁾. 따라서 전승자들은 설화를 이해 가능한 범위내로 축소하고 굴절시켜 단순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풍수설화가 오늘날까지 현장성을 지니고 전승될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문제에 주된 관심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방향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명당설정이다. 명당은 인간생활에서 요구하는 결핍상황을 해소하고 충족하며 명당을 통해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당을 통하여 불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수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陽宅풍수설화와 陰宅풍수설화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며 일부사람만의 문학이 아닌 범민족의 문학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풍수설화는 제주전역에 광포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분류 대상 자료 수 32편 중, 明堂 設定 원인별 8편(25%), 明堂 設定 결과별 16편(50%), 仲介者별 8편(25%)으로 분포되어 있다.

연구 범위는 풍수설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이야기 중에서 제주에 분포되어 있는

9) 최래옥, “한국풍수설화의 수용 의미”, 한국 일본의 설화 연구, (인천대학교 출판부 1987), P.132.

풍수설화를 대상으로 하되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연구자가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 여건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 조사자들에 의해서 채록된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정리, 출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 자료집들을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집들 중 특히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첫째 가장 많이 집대성 되어 있고, 둘째 전문가에 의해 일정 기간 조사되었으며, 셋째 현지에서 전승자들을 직접 만나서 조사한 생생한 자료이므로 자료적 가치가 어느 것보다 높다는 이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주 텍스트로 활용하였다.¹⁰⁾

3. 연구 방법

설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문예 미학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고찰, 민속학적 연구, 역사학적 고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설화의 구조를 분석, 종합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일정한 해석을 가하려 하는 것이므로 일단 논지 전개를 구조주의적 방법에 의해 시도하려 한다.

즉, 각 설화들의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들을 끌어내어 설화의 내재적 원

10) 연구자가 채택한 텍스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 출판사, 1971).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59).

현용준 · 현길언, 제주 설화의 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이하 “한국 구비문학대계”는 “대계”로 약칭한다.)

리를 규명하려 한다. 그리고 설화가 가지는 의미와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종교, 사회,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 역사적 방법론도 동원될 것이다. 또한 설화는 전승된다는 점에서 전승자의 특성을 살피는 의미에서 전승자의 부연적 사실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풍수설화가 현실생활 속에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수집된 자료 32편을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유형 분류는 제주도 전지역에 있는 유화들을 하나로 모아 일반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유형을 찾아내는 선행작업이 된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분류를 중심으로 각 유형별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때 논의의 대상은 3차 분류된 유형이며 그것을 종합하여 상위 분류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전개는 각 하위 유형별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공통된 구조와 의미를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풍수설화는 대개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등장인물은 명당을 설정하는자, 명당을 얻는자, 그리고 명당을 얻거나 발복과정에서 개입된 제 삼의 인물이다. 이러한 설화 속에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명당을 설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설화 그 자체의 작품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풍수설의 설화 수용 양상

1. 풍수설의 형성 배경

풍수설은 신령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지배한다는 무속신앙, 사주팔자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복 예언신앙과 풍수지리가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풍수도참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¹⁾ 이러한 풍수설은 山水가 신비로운 생기를 내포하여 인간생활의 배후에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인간과 사령을 조화시킴으로써 인간 생활에 복리를 추구하려는¹²⁾ 데 있다.

풍수설은 중국에서 통일신라 이후에 전래되어¹³⁾ 한민족의 정신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 예로 고려 명종 때의 松都氣衰說에 따른 三蘇¹⁴⁾ 실시는 풍수설의 신앙 모델이 된 구체적인 사례다. 조선조에는 관상감에서 주관한 陰陽科「천문·지리학·命科學」을 둘 정도로 실제생활과 밀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풍수설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했기에, 孝의 倫理 실천을 가장 근본으로 삼았다. 효의 실천은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조상의 음택에 쏟은 정성은 대단했다. 고려조는 불교국이기에 시

11) 이병도, 한국의 민속종교 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83), P.21.

12) 이회덕 외, “풍수지리”, 한국사상의 원천, (서울; 박영사, 1976), P.182.

13)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14) 고려 중엽 이후 국세가 날로 쇠약해지자 송도의 地德이 다했다는 松都氣衰說이 유행하여 천도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수도의 둘레에 명당터를 설정하여 궁을 짓고 왕이 가끔 머물면 송도의 지덕이 보충되고 국운이 연장된다고 하여, 1174년(명종4년)에 三蘇를 설치하였다. (高麗史)

신의 화장으로 인해 음택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음택을 찾아 발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 풍수설화를 낳게 된다.

태조 자신이 풍수설에 관심이 깊었기에 계룡산 도읍을 서둘렀다. “옛날 易姓革命의 군주는 반드시 都邑을 옮겼다. 지금 내가 급하게 鷄龍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이 직접 新都를 정하고 싶어서이다.”¹⁵⁾라고 하여 새로운 도읍을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태조의 계룡산 천도는 중단되고 漢陽 천도는 陰陽測定都監까지 두고 결정한다. 이렇게 되니 민간에서는 餓緯術數가 유행하여 太宗 17년 참위술의 금지령을 내린다.¹⁶⁾

그렇다고 書雲觀의 풍수학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世宗 7년에 風水學習讀人의 정수를 10인으로 정하며 世祖 11년 풍수학을 지리학으로 개칭하여 陵墓를 정할 때는 풍수학이 동원되었다.¹⁷⁾ 이처럼 조선의 풍수설은 왕가로부터 시발되어 모든 민간에 퍼져나갔다.

특히 불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던 고려조나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에서 풍수설이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풍수설의 사고 원리가 여타의 신앙 체계와도 상충되지 않고 강한 친화력과 흡인력을 발휘하며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풍수설은 생기와 感應의 사상인데 이는 陰陽五行說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太祖實錄, (太祖 二年, 二月, 朔).

16) 太宗實錄, (太宗 十七年, 十一月, 五日).

17) 車柱環,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P.138.

18) 장장식, 전제서, P. 145.

중국에서 일어난 陰陽五行說에 의하면 세상만물은 음양의 氣가 활동함으로써 생긴다는 것이다.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기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땅은 만물을 생성하는 地母의 구실을 하며 생기가 산맥을 따라 흐르다가 결집된 곳의 명당이 된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생기가 있는 곳에 사람의 시신을 정주시키면 그 유체에 생기가 들어간다. 또 살아 있는 자는 氣의 모음이며 기가 응결되어 骨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생기가 되는 骨만이 홀로 남는다는 것이다.²⁰⁾ 이른바 하늘에 오른 음양의 氣가 天氣를 이루며 땅에 흘러내려 地氣가 되고 사람에게 전해져서는 人氣가 된다. 인기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기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땅에 묻힌 자는 생기를 타야 한다.『葬者乘生氣也』²¹⁾ 이와 같이 생기가 만물의 조화력이 되는 까닭에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설과 결부되어 지형[地氣]의 힘에 의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결핍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풍수의 종류는 크게 양택풍수와 음택풍수가 있는데 양택은 주택을 좋은 명당터에 선택함으로써 해서 발복된다는 이야기이고, 음택은 조상의 묘를 吉地에 정주함으로써 그 결과로 감응을 받은자가 발복하게 된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풍수설은 지세의 변화 풍수의 조화가 인간의 생사의 신비관과 결부되어 민간에 전파되었다. 지금도 陽宅보다는

19) 박서호, “한민족의 삶과 죽음의 정주공간에 대한 이론 체계” 청목 27호.(대전; 한남대, 1984), P. 78.

20) 이회덕 외, 전게서, P. 186.

21) 이병도, 전게서, P. 21.

22)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252.

陰宅의 풍수설이 일부 사람에게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畏敬과 신비 때문일 것이다. 이 풍수설이 매력을 끄는 첫째 요건은 죽음이고 다음은 산천의 지세와 인간의 체형을 동일시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의 지세를 龍虎 등의 이른바 聖獸 관념과 연결시켜서 풀이하는 데 신성성이 가미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과거 삼한시대부터 풍수의 속신은 일반 민중과 朝野에 성행했으며 고려 개국 후에는 풍수신앙이 공적 관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조시대에는 개국 풍수 僧 無學師에 대한 설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 예로 太祖의 아버지 太祖(李子春)의 묘지 占定이 吉祥하기 때문에 뒤에 창업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漢陽 등 새 왕조의 국도 尊定에서도 역시 無學師의 풍수知見이 작용하였다²³⁾ 한다. 이처럼 조선은 풍수설의 유행은 신앙화되면서 이에 따른 많은 설화들이 생성되었다. 이와같은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서민 가사까지 등장했다.

예로 우부가에서는 “陰陽術數 貪好하여, 當代發福 求山하기, 올적 갈적 行路상에, 처자식을 홀어놓고”²⁴⁾라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민간에 풍수설이 얼마나 유행했는가를 보여 주는 한 예이며 이러한 유행은 민중의 생활까지 침해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비치고 있다. 풍수설은 종교와 관계되지 않는다. 오로지 조상숭배의 向念과 자신의 발복의 목적은 종교적 이념까지도 뛰어 넘어 성행하게 되었다.

23) 이회덕 외, 전거서, P.182

24) 정병욱 외 4인 편저, 한국고전문학정선, (아세아문화사, 1985), P.345.

2. 풍수설의 설화적 수용

풍수설은 고래로부터 왕과 상층민들이 하층민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역대 도읍지들은 대부분 풍수설에 기인하여 명당터를 고르고 있다. 그러므로 도읍지, 주택, 묘 같은 것을 땅 속의 생기가 집결된 명당자리에다 정함으로써 국가나 개인의 구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왕이나 조상의 무덤을 吉地에 設定하기 위하여 시신을 오래도록 집안에 두거나 임시로 묻었다가 명당을 몰래 빼앗거나 묻는 暗葬, 혹은 偷葬 등이 빈번히 일어났다.²⁵⁾ 그리고 더 좋은 자리에 묘를 쓰기 위하여 유명한 풍수를 찾아 다니거나 풍수사의 말을 믿고 이장하기 위해 전재산을 날려버린 예가 허다했다. 그러나 풍수설은 하나의 관습이 되고 신앙화되면서 널리 퍼졌으며 그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 집안이 모두 망했다든가, 묘를 이장했기 때문에 후손이 없다든가, 묘에 나무뿌리, 습기 등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는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 예로서 제주도의 경우 주거지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으나 묘 자리만은 유명한 풍수가 골라낸 명당에 묘를 쓰기 위하여 공동 묘지에는 虛葬을 하고 명당 자리를 골라서 묘를 쓰고 있다. 또 묘와 집은 늘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25) 이종항, “풍수지리설의 성행과 우리 민족에 미친 악영향에 관한 일 고찰”, 경대 논문집 5집, (대구; 경북대학교, 1961), PP.500-501.

26) 손정희, 전세서, PP. 34-35.

후손의 안전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관념되어 왔으며, 주거에서 묘가 보이는 주택은 불길한 것으로 속신되어 왔다.²⁷⁾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상의 묘라 할지라도 인가와는 먼 곳에 묘를 쓰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死靈과 인간과의 사이가 가깝게 되면, 사람들은 이승길은 멀어지고 저승길과 점점 가깝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으로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집안의 경우는 반드시 어느 명당의 은덕이라고 믿고 있으며 불행이 닥쳐 온 집안은 어느 묘자리가 나쁜가를 점쟁이를 불러 점치거나 풍수를 찾아 물어보거나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이나 이장을 하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산방산 (제주도 남제주군에 있는 산)에 장수가 날 명당자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몰래 묘를 쓰자 가뭄이 계속 되었다. 마을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산방산에 올라가 굴을 뚫고 묘를 쓴 곳을 찾아내어 묘를 파헤치고 내려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부터는 산방산에 묘를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금장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²⁸⁾ 이 이야기는 개인의 행복과 번영 보다는 국가나 마을 공동체의 운명이 중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지금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승자들에 의해 풍수설이 현실생활에 밀착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들로 보아 제주도민은 다른 어느 지역 사람들 보다는 풍수설을 또 다른 하나의 신앙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다²⁹⁾ 고 하겠다.

27) 진성기, “제주도민과 풍수지리”, 한국문화인류학 1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P. 168.

28)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637.

29) 진성기, 상계서, P.166.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풍수설은 설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의 열쇠인 풍수설에 부화된 각종의 설화들을 상기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수설은 그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화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여 왔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풍수설은 이론체계의 다양성과 난해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이 인식하는 풍수설은 전문적인 풍수가 이해하고 있는 이론과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민간인들은 풍수설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구연한다. 게다가 많은 구연자들은 풍수설화를 구연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놓는 것처럼 인식한다.

풍수설화는 반드시 풍수설을 잘 알아야만 구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풍수설이 곧 풍수설화일 수 없고 풍수설화가 풍수설일 수도 없다. 즉 풍수설이 이론의 영역이라면 풍수설화는 문학의 영역이 된다. 풍수설화는 풍수설 자체의 영역을 뛰어넘어 삶의 지평을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풍수설은 풍수설화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나 풍수설화는 풍수설의 그것뿐만 아니라 좀더 고차원적인 영역까지 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풍수설과 풍수설화의 독특한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있다.³⁰⁾

이와 같은 풍수설은 지리적 역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으로서, 제주라는 독립된 지역 공동체가 갖는 응집력에 작용하여 특유한 설화를 낳게 되었다. 나아가 이는 풍토의 불모성과 외세의 잦은 侵奪에 대한 보상적 심의 현상으로 나타나 일종의 신앙적 대상으로까지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종달 설화는 주인공으로서 중국인을 내세워 제주가 독립된 국가임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외세에 대한 강인한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체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30) 장장식, 전거서, PP.173-175.

Ⅲ. 제주풍수설화의 유형

일반적으로 풍수설화의 전개 양상은 명당에 묘를 쓰게 된 원인과 묘를 쓴 후의 결과, 그리고 이 과정에 작용하는 풍수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주도 풍수설화를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서 유형을 분류하였다.

풍수설화의 유형 분류는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가짓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유형 분류의 실체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1. 明堂設定 원인별 유형

풍수설화의 유형별 분류는 첫째 명당의 설정동기나 내력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베풀고 얻는 유형과 빼앗는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풍수설화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 영속적인 삶의 존재 지속을 표출하는 관념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존재의 기준을 공간성과 시간성으로 볼 때,³¹⁾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일련의 행위들이 종교적 모델이 되는 동시에 신앙 행위의 정신적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풍수 관행과 이야기로의 수용도 이해가 가능하다.

죽음과 삶, 명당, 발복 등이 풍수행위의 대립적 의미로 작용되며, 죽음이라는 단절의 차원을 이탈하여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31) 김태곤, 한국무속 연구, (서울; 집문당, 1981), P.156.

현실의 불안한 상황을 제거하고, 만족 가능한 미래의 전망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³²⁾

그러므로 명당설정을 통해서 좀더 나은 미래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은 주체자, 객체자, 중개자 등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체자란 명당에 묻히는 자를 말하고, 객체자란 명당에 시신을 묻거나 주체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중개자란 풍수에 능통한 자를 말한다.

1) 베풀고 얻는 형

베풀고 얻는 형은 명당 설정을 위한 행위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은혜를 베풀으로써 그 댓가로 명당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선행은 정성, 적덕, 회생, 효성³³⁾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주체자의 선행에 의하여 발복하거나, 객체자의 선행에 의하여 명당이 주어져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즉 명당에 묻히거나, 명당 획득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행위의 주체자라 한다면 명당을 설정해 주거나, 명당에 묻는자를 객체자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당에 묻힌 자를 주체자라하고 명당을 설정하거나 명당에 묻거나, 또 명당설정 후 발복하여 은혜를 입게 되는 자를 객체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행이라는 행위는 명당 설정과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 선행이 미치는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갖는 성격도 차이가 있다.

32) 장장식, 전게서, P.36.

33) 강중탁, 전게서, P.60.

(1) 사람과 사람 사이

주체자가 명당을 설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선을 하거나 정성을 들이는 등 노력의 결과로 명당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유형은 주체자가 첫날 밤 부인이 낳은 아들을 길러 주거나, 제자를 가르치거나, 재물을 바치는 등 선행을 함으로써 보은으로 명당이 설정되고 그 결과로 발복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만능의 묘」³⁴⁾가 있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만능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
2. 장가간 첫날 밤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3. 남편은 아이를 자신이 주워 온 것으로 소문을 내고 키웠다.
4. 아이가 커서 그 사실을 알고 집을 떠났다.
5. 아이는 중국에 가서 풍수지리를 공부했다.
6. 조만능이 죽자 아이는 장성하여 중개자가 되어 나타났다.
7. 중개자인 형이 묘자리를 몇 군데 정했으나 이복 형제들이 반대했다.
8. 은혜를 갚기 위해 형제들 몰래 의붓아버지를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다 묻는다.
9. 후에 자손이 벼슬을 하고 번창하여 조만능의 묘를 찾게 되었다

34) 현길언·김영돈, 대계, 9-1, 전계서, P.120.

이와 같은 유형은 이 밖에도 모두 4편이 있다. 이를 선행 내용, 보은 내용, 그 결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배풀고 얻는 형

제 목	주체자의 선행	보 은 내 용	결 과
공 갚은 의붓 자식. ³⁵⁾	첫날 밤 아이를 길러 줌.	섬에 명당을 설정 해 줌.	자손이 번창함.
묘지덕에 부자된 양씨. ³⁶⁾	재물을 드림.	명당을 설정해 줌.	부자가 됨.
명도선생묘와 고 전적. ³⁷⁾	소 목사를 가르침.	이장시킴.	불분명함.
배질력 베풀장. ³⁸⁾	비단을 재물로 드림.	집터를 설정해 줌.	자식이 군수가 됨.

「공 갚은 의붓 자식」은 주체자가 선행을 배품으로써 객체자와 무관했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이된다. 주체자가 자기 아들 이상으로 훌륭히 공부시켜 키웠다. 아버지가 죽자 바닷가에 묻는다. 후에 자손이 과거에 급제하여 유람을 다니다가 조상의 묘를 찾게 된다. 그 묘는 중개자가 된 아들이 은혜를 갚고자 의붓 아버지 시신을 형제들 몰래 배에 실어 명당자리를 찾아 섬에 묻은 것이다. 그 결과 자손이 출세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변이되고 있다.

「묘지덕에 부자된 양씨」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수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으며 재물을 정성껏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설화이다. 양씨의

35)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277.

36)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349.

37)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상계서, P.401.

38)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상계서, P.54.

아들이 강훈장(중개자)에게 재물을 드린다. 강훈장은 셋째 아들의 재물만 받고, 그 댓가로 명당을 설정해 준다. 그 아들이 농사를 지었으나 마소의 난동으로 실패하고 남의 집 밭을 빌어 조농사를 지었다. 일찍 지은 농사들은 風雨로 망쳤지만 늦게 지은 셋째 아들의 조농사는 풍작이었다. 이는 묘를 잘 쓴 결과였다.

「명도 선생묘와 고전적」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명도 선생이 소 牧使를 가르쳤는데 소 목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고전적'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명도 선생의 묘를 명당자리로 이장시켜 주었다는 짝막한 줄거리이다.

「배질력 벤당장」은 또 다른 변이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이다. 즉, 중개자가 집터를 잡아 주면서 적덕을 하라고 하였다. 중개자의 말대로 비단 열 통을 놓고 집을 지었으면 자손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비단 한 통만 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군수가 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내용이다.

4개의 설화는 陰宅과 陽宅에 관한 이야기로 양분된다. 「공갓은 의붓자식」, 「묘지덕에 부자된 양씨」, 「명도 선생과 고전적」 이야기는 모두 음택으로 인해 발복하는 유형이고, 「배질력 벤당장」의 이야기는 양택에 의해 발복한다는 유형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은 그것이 음택에 관한 것이든 양택에 관한 것이든 인간은 배플면 꼭 댓가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준다. 이와 같은 설화는 제주인의 상부 상조정신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설화이다.

(2) 사람과 동물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의 이야기는 동물이 보은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주체의 행위를 보완하는 보조자가 동물이지만 여기서의 동물은 인간의 대리자적인 역할을 한다.

이 유형은 동물의 행위가 인간 이상의 우월적 존재로 나타난다.

이 설화에서는 주체자가 동물에게 입힌 은혜로 말미암아 동물이 보은으로 명당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주체자가 베푼 은혜는, 동물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시켜 준 것이며 이에 대한 동물의 보은은 한결같이 명당을 잡아 주는 것이다.

인간은 댓가를 바라고 은혜를 입힌 것은 아니나 그것이 순수한 적덕이 되고 그 결과 명당을 얻어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주체자가 동물을 먹여 선행함으로써, 짐승도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댓가를 치름으로써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³⁹⁾

이 유형의 설화는 「명구 무덤」⁴⁰⁾ 1편뿐이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인은 흰 개를 정성을 들여 잘 길렀다.
2. 주인이 병들어 죽자 개가 집을 나가 버렸다.
3. 얼마 후 흰 개가 뼈만 남은 흙투성이 검은 개로 변하여 돌아왔다.
4. 개는 무덤 만드는 그림을 그려두고 와서 먹지도 않고 보채기만 했다.
5. 개를 따라 가보니 명당자리였다.
6. 중개자가 그 곳을 '富貴兼全之地'라고 했다.
7. 후에 개가 죽자 주인과 같이 묻고 있다.
8. 이 무덤은 '명구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39) 신월균, 전계서, PP. 111-112.

40) 현길언·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 671.

한편 .육지에도 이러한 유형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주인 묘터 잡은 충견」⁴¹⁾인데 여기서는 주인은 굶으면서도 개는 굶기지 않아 그 보은으로 명당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호랑이, 노루 등을 살려 주거나 용의 승천을 도와 주어 명당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제주에는 「명구 무덤」 설화만이 동물 보은담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동물 애호 사상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가족을 짐승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가 굶으면서도 개를 먹일 수 있었으며 개는 그러한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 명당을 설정해 줌으로써 보은하고 있다. 인간과 개의 훈훈한 정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설화이다.

2) 빼앗는 형

이 유형은 명당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빼앗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데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형제간에 이루어진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유형은 풍수 관념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생겼으며 이러한 관행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조선시대부터 근간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이러한 성행은 暗葬이나 투장의 성행에도 알 수 있다.

41) 신월균, 전계서, P.111.

暗葬은 공식적으로 남의 묘지 이외의 땅에 남몰래 매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고된 사례만도 상당하다. 그 이유는 가문의 번영이나 치병, 자손의 출생을 위하여거나 또는 공동묘지를 피하고 사설묘지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다.⁴²⁾

이처럼 명당에 얽힌 유형 무형의 싸움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이는 문학적 소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이야기로 형상화되어 풍수설화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명당을 빼앗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행위로 나타나며 지혜로 빼앗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잡아 놓은 묘자리를 지혜로 빼앗아 썼다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설화는 「딸이 친정 명당자리를 빼앗은 이야기」⁴³⁾ 1편 뿐이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친정 아버지가 명당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 보고 있었다.
2.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비를 피하려고 숨어 있는데 사방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명당임을 안다.
3. 아들을 불러 자기가 죽거든 그 자리에 묻으라고 하였다.
4. 딸이 엿듣고 시아버지가 먼저 죽자 그 자리에 묻는다.
5. 그 결과 시집은 번성하고 친정은 명당을 빼앗겨 가문이 쇠퇴한다.
6. 그 후로 오빠와 누이가 묘자리 문제로 다투며 살았다.

이런 유형은 육지에도 많은데 그 예로써 “피를 써서 형의 묘자리를 빼앗은 이야기”와 “남이 잡은 명당에 자기의 墓表를 묻어서 빼앗은 이야기”⁴⁴⁾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42)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서울;민음사, 1990), P.492.

43)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 635.

갖가지 방법과 지혜가 동원되고 있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3) 惡靈 퇴치형

이 유형은 베풀고 받는 형과 빼앗는 형의 어느 것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형으로 설정의 원인이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다만 미신을 섬기는 지역이나 가문에 제 삼의 인물 또는 주체자가 들어와 惡靈을 퇴치하고 묘를 솜으로써 발복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악령 퇴치형이라 분류하였다.

이 유형의 설화는 「목신을 이긴 며느리」⁴⁵⁾ 1편뿐이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며느리가 시집 올 때 中道에서 行樂客과 더불어 일등 기생처럼 놀았다.
2.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대대로 섬겨 오던 木神을 도끼로 찍어 버린다.
3. 시아버지가 죽자 며느리의 주장대로 명당자리에 묘를 설정하였다.
4. 명당에 묘를 쓴 탓에 팔도조병사 삼형제를 낳았다.
5.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거절하였다.
6.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다.
7. 셋째 아들이 커서 팔도 조병사가 되었다.
8. 왕운이 있어서 십일대 목신도 복수를 못했다.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중도에 행락객들이 있었다. 신랑보고 놀다 가자 하며 일등 기생처럼 춤추고 놀았다. 며느리가 집에 있는 십일대 목신을 도끼로 찍어 버렸다. 시아버지가 죽자 명당 자리를 찾던 중 ‘저산이 한 자만 낮아도 영웅이 날 것인데’ 하는

44) 신월균, 전계서, P. 137.

45) 현용준·김영돈, 대계 9-1, 전계서, P. 208.

중개자의 말에 모두 산을 깎을 엄두도 못내나, 머느리는 산을 깎자 한다. 그때 갑자기 벼락이 쳐서 산이 깎인다. 그 자리에 묘를 써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중이 시주 받으러 왔으나 욕을 하며 거절하자, ‘아들을 잡아 간다’ 하더니 첫째, 둘째 아들이 죽는다. 또 중이 와서 ‘아들을 데려간다’ 하자, 지금 데려가라고 하며 셋째 아들을 던진다. 중이 놀라 도로 아기를 주고 갔는데 이 아이가 커서 팔도 조병사가 된다. 왕운이 있어서 십일대 목신도 복수를 못했다.

여기에서 머느리는 팔도조병사 삼형제를 낳기 위하여 첫째, 둘째아들이 죽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어떠한 회생을 감수해서라도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불만족한 현실보다도 만족한 미래를 지향하려는 데 있다. 즉 행복관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명당설정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 및 후손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권세지향적인 구복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⁴⁶⁾ 아무튼 이 유형은 가부장적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이야기 속의 머느리는 여성 생산력의 우주적 모델인 地母神의 성격을 띄게 되고, 풍요와 再生, 多産과 가문의 번성을 관계하는 고대 신화의 여성 상징과 연결된다.⁴⁷⁾ 그러한 여성상징이 풍수설화로 轉移되어 생성된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는 머느리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악령마저도 퇴치할 수 있는 설화적 양상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적 특색이 있다. 제주는 삼다의 섬이며 여성들의 노동력과 경제력은 제주도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여성이 木神과의 대결을 이겨냄으로써 자신의 가족사를 빛나게 하는 데서 제주여성의 강인함이 설화화 되었다고 하겠다.

46) 임갑량, “음택풍수설화 연구”, 한국학 논집 13집, (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P.168.

47) 장장식, 전제서, P.139.

2. 明堂設定 결과별 유형

풍수설화는 인간의 삶과 구복이라는 관념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 명당과 발복이라는 항목들이 중요한 의미로 대두된다. 이는 불안하고 불만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만족한 미래상을 나타내려는 데 있다. 명당을 설정한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결과에 주된 관심이 집중되는 이야기로 即時 發福型, 待時 發福型, 失敗型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即時 發福型

即時 發福型은 주체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실의 고난을 즉시 해결해야 하는 현재의 중요성에 의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현실의 고난은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 장애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명당을 설정하고 즉시 복 받기는 주체자가 현실의 고난을 즉시 해결해야 하는 현재 인식에서 중개자는 명당터를 즉시 발복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준다.

주체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의 해소책이 명당 설정 즉시 발복이기 때문에 발복 그 자체는 신비하고 설화적인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주체자의 주된 관심은 재물이기 때문에 후반부의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개된다.

이 유형 설화는 「조빈석부지지」⁴⁸⁾가 있다. 서사단락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8) 현용준, 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678.

1. 어떤 과부 자식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푸나물 장사를 한다.
2. 그 과부 자식은 묘를 잘 쓰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3. 그 후 과부 자식은 푸나물을 캐러 목장에 갔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朝貧夕富之地”라고 했다.
4. 그 말을 듣고 부친의 묘를 이장한다.
5. 열 여섯 번 이묘한 후에야 색시 얻고 부자가 된다.

이 이야기는 과부자식이라는 주인공의 결핍된 가족환경과 결혼도 하지 못한 비극 위에 가난이라는 생활고까지 겹친 극한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주인공은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곧 아버지의 묘소를 명당으로 이장시키기 위하는데 집중된다. 모든 求福은 결핍을 해소하려는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그 의지의 발현이 명당 설정이고, 이를 통해 결핍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에 의해 명당이 얻어지고 모든 결핍은 충족된다.

이 유형은 명당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난을 무릎쓰고 주인공의 노력과 의지에 의하여 발복에 이르게 된다. 명당 설정 즉시 색시를 얻고 부자가 됨으로써 결혼과 부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그 방법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여성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주적 특성을 잘 형상화해 준 설화다.

2) 待時 發福型

명당에 묘를 쓰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복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중개자는 중의 신분으로 등장한다. 중은 설화 전반에 걸쳐 구원자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중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면서도 그 해결방법은 초월적이며 전지적 입장에서 인간의 우위에 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 과정 또한 중개자

의 신이한 능력에 의존하려는 심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유형의 설화는 「가목관 김씨댁」⁴⁹⁾ 1편뿐이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주 김씨가 집을 지을 때 중이 지나가다가 집터를 봐준다.
2. 경주 김씨가 죽자 중이 묘자리를 설정해 준다.
3. 묘에 축장(담 쌓는 일)할 때 점심을 싣고 온 말이 없어졌다.
4. 집나간 말이 십년 후 몇백 필이나 되는 말을 데리고 들어왔다.
5. 부자가 되고 나라에 말을 바쳐 가목관 벼슬까지 한다.

이 이야기는 중이 명당자리를 선정해 준 뒤에 집나간 말이 몇백 필이나 되는 많은 말을 데리고 옴으로 부자가 되고 가목관 벼슬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도 제주적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명당에 조상을 모심으로써 잃어버린 말이 많은 말을 데리고 들어 왔다는 것이다. 설화에 말이 등장하는 것은 제주적이며 말이 부의 상징으로써 표상되고 있음 또한 그렇다.

3) 失敗型

명당을 얻고 과욕이나 금기 파기로 망하거나 명당을 파손함으로써 발복하지 못하거나 주체자의 악덕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이미 발복한 명당의 혈을 끊게되어 명당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객체자의 잘못으로 발복에 실패하거나, 객체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야기이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금기 위반형과 혈 끊기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49)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 714.

(1) 금기 위반형

중개자가 명당을 설정하고 묘 쓸 시기를 전후하여 지켜야 할 금기를 제시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설화는 중개자가 명당을 설정하되 다른 설화에서처럼 순조롭게 발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제시된다. 금기는 신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어지는 사고로써 신성성을 지키기위한 조건인 것이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신성성이 침범됨으로써 신성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 목사와 오택 묘」⁵⁰⁾가 있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인 오씨가 소 목사에게 묘자리를 정해달라고 한다.
2. 운명으로 타고 나지 않아 발복이 어렵다고 한다.
3. 명당을 설정해 주면서 ‘땅을 팔 때 누가 와도 파하지 말고, ‘돌이 나와도 파내지 말라’고 금기를 제시한다.
4. 사위가 오지 않은 군수를 헛것으로 보고 조문 왔다고 한다.
5. 상주가 조문 받으러 자리를 뜬 사이에 사위가 돌을 파내어 버렸다.
6. 반석 밑에 있던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7. 그 뒤 집안이 망한다.

이와 비슷한 유형은 「비둘기 날아 버린 묘」⁵¹⁾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중개자가 금기로 땅을 팔 때 “돌이 나오더라도 파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객체자는 금

50)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 607.

51)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 228.

기를 어겨 묘자리를 팔 때 자리를 뜬다. 이때 일꾼이 반석을 꺼내니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그뒤 명당이 효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첫째, 셋째 아들이 죽는 비운을 맞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금기 파기는 화를 자초하고 있다. 금기 위반형 설화는 초월의 힘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금기의 파기는 곧 초월자의 말을 어김으로써 받아야 한다는 형벌이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는 금기가 파기됨으로써 받는 인간의 횡액을 소재로 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제주는 자연환경이 금기를 생활화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곧 이러한 설화는 생활에서 금기를 지키도록 은연 중에 시사한 설화라 하겠다. 인간의 조심성을 극대화하는 데 금기설화의 의미가 내재한다.

(2)혈 꿇기형

혈 꿇기형은 산의 정기를 받아 한 국가나 집단, 혹은 개인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지배계층은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샘을 메우거나 조상의 묘를 파헤치거나 혈을 꿇는 등 명당을 破毀시킨다.

개인의 능력과 번영이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당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풍수적 사고관념에 의한 발상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것이 기존 지배층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되므로 정기가 흘러오는 길목을 끊어서 정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혈 자체를 꿇어서 흘러온 생기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혈 꿇기형 설화는 제주도 전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구전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기장수형과 고종달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 아기장수형

구원자적 존재로서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면서도 막상 아기장수가 태어나자 부모 스스로 아이를 죽이거나 묘를 파헤쳐서 장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한 집안이 지나치게 번성하면 반역을 하여 지배계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상층민의 통치이념에 의해 혈을 끊는 행위를 한다. 이것은 지배층과 상층민의 자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혈을 끊는 행위는 한 집안의 흥망보다도 국가가 우선한다는 통치이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왕권이 지배하는 국가에서의 가치관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날개 돋은 강정 김씨 자손」⁵²⁾이 있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씨가 오공혈에 묘를 쓴다.
2. 날개 돋은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다.
3. 아기가 사람이 없으면 공중으로 뛰어다닌다.
4. 묘를 이장시켰다.
5. 아기가 죽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이 밖에도 모두 3편이 있다. 이를 중개자의 예견 내용과, 주체자의 행위와 그 결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게서, P. 388.

〈 표 2 〉

아기장수형

제 목	중개자의 예견	주체자의 행위	결 과
명당 한수 53)	장수 태어날 명당 자리.	묘를 파헤쳐 버림.	힘을 못 쓰게 됨.
오 찰 방 54)	유명한 장수가 태어날 명당자리.	아기의 힘줄을 끊음.	‘찰방’ 직을 얻음.
날개 돋힌 아이 ⁵⁵⁾	왕후지지.	단혈함.	아기를 없애버림.

「명당 한수」도 아기장수의 비관적 삶을 제시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중개자가 명당에 묘를 쓰게 하고 “삼년까지만 가만히 문안에 있으라”고 했다. 묘를 쓴 후 力拔山 氣蓋世할 것 같은 힘이 솟아 났다. 서울로 가 경복궁 대들보를 들어서 받쳐두고 나룻배로 한강물을 떠다가 불을 끄자 나라에서는 역적이 될까 두려워 그 장사를 잡아다가 묶고 조상의 묘를 파헤쳐 버리자 힘을 못쓰게 되었다.

「오찰방」은 비극성이 상당히 극복되어 나타난 이야기이다. 오백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전적은 명당을 설정해 준다. 어머니가 오백서를 낳았는데 힘이 장사고 매우 민첩했다. 부모는 장차 대역 죄인이 될까 염려하여 오백서의 힘줄 하나를 끊어버린다.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센 壯士가 나타난다. 나라에서는 그 장사를 잡는 자에게는 큰 벼슬을 주겠다고 했다. 나서는 사람이 없자, 나라에서는 오백서에게 부탁하여 장사를 잡게 했다. 나라에서는 그 댓가로 ‘명장’이라 하고 찰방직을 주었다. 나라에서는 오백서가 힘줄 하나 끊긴 것을 매우 안타까와 했다.

53) 현용준·김영돈, 대계 9-1, 전계서, P. 117.

54)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 148.

55)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 501.

「날개 돋힌 아이」도 비극이 극대화된 내용이다. 왕후지지에 묘를 쓰자 겨드랑에 날개가 돋은 아이가 태어 났다. 官에서 알면 滅族을 당할까 두려워 아이를 없애 버린다. 목사가 순시하다 왕후지지에 묘를 쓴 것을 보고 혈을 꿰고 굴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중개자가 왕이나, 장수가 태어날 명당자리를 예견한다. 막상 아기장수가 태어나자 장차 역적이 되어 집안과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묘를 파헤치거나 아기의 힘줄을 꿰거나 없애 버린다. 그 결과 아기장수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세 당하거나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 가거나 죽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② 고종달형

고종달형 설화는 제주도 지역만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고종달이라는 비역사적 인물이 제주 곳곳에 혈을 꿰어 제주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제주인이 처한 자연의 불모성과 행정의 부재 등을 表象해 주고 있다.

고종달형 설화는 제주인이 외세와 대결하는 代償 행위로서 강인한 저항정신과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本土[陸地]와 비교해 볼 때 제주 특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고종달형 설화에서는 구좌면 종달리라는 지명이 고종달 이름과 동일한 데서 왕이 날 지세임을 확인시켜 주어 제주도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胡宗旦과 遮歸島」⁵⁶⁾가 있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왕은 제주가 왕이 날 지세임을 안다.
2. 왕이 나지못하도록 고종달을 제주에 보낸다.
3. 고종달은 제주에서 혈꿴기를 한다.

56)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82), P.231.

4. 혈궤기를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

5. 고종달이 중국으로 돌아 갈려고 한다.

6. 한라산 수호신의 노여움을 사서 고종달이 탄배가 遮歸島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침몰당한다.

7. 그후 고종달이 돌아감을 막았다하여 차귀섬(전에는 竹島) 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유형은 이밖에도 모두 5편이 있다. 이제 대강을 요약 한다.

「화북리 행기물」⁵⁷⁾ 설화는 중국왕이 중개자 고종달을 종달리(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종달리)로 보낸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종달리에 온 고종달은 자기 이름을 그 곳 아이들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名人의 고장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고종달은 斷水하기 위해 화북리에 갔을 때, 水神이 발가는 농부에게 살려 달라고 하여 농부가 소길마 밑의 행기(그릇)에 물을 넣고 숨겨준다.

「서흥리 샘이물」⁵⁸⁾ 설화는 고종달이 뛰어난 氣壓述로 왕의 총애를 받고 벼슬까지 하는 것으로 또 다른 변이를 보이고 있다. 고종달은 왕명으로 제주에 보내어진다. 고종달이 斷水하러 서흥리에 갔을 때 수신이 농부에게 살려 달라고 한다. 농부는 水神을 우장 속에 숨겨준다.

「영평리 수세못」⁵⁹⁾ 설화는 중국왕이 고종달을 종달리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종달은 자기가 종달리로 올 줄 알고 종달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고 생각한다. 고

57) 현용준·김영돈, 대계 9-1, 전게서.

58)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게서, P.179. 405.

59)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게서, P.722.

종달이 斷水하러 영평리에 갔을 때 처녀[水神]가 농부에게 행기에 물을 가지고 와서 숨겨 달라고 한다. 농부가 행기물을 소길마 밑에 우장을 덮어 숨겨준다.

「토산리 거슨샘」⁶⁰⁾ 설화는 고종달이 胡國사람이며 제주도 종달리로 왔다 하여 고종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다. 고종달이 제주도 지미봉 상봉에 올라가서 한라산 영신을 불러서 水[山] 혈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문서에 기록한다. 고종달이 斷水하기 위해 토산리에 갔을 때 수신이 농부에게 가서 살려 달라고 한다. 농부가 소길마 속에 숨겨준다. 「반디기밭」⁶¹⁾ 설화는 중국에서 제주에 장수가 많이 날 지세임을 알고 혈 끊기를 하러 고종달을 보내었다고 되어 있다. 고종달은 지리를 잘 아는 경주 김씨를 데리고 혈 끊기를 하러 다닌다. 경주김씨가 「반디기밭」(田名)에 갔을 때 쇠막대기가 마구 뛰어서 뽑아보니 피가 벌겍게 묻어 있었다. 고종달이 경주김씨 보고 이곳은 신이 너에게 마련해 준 땅이니 집을 지어서 살라고 한다. 경주김씨는 그곳에 집을 짓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한다.

③ 인위적 조작형

명당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실제의 풍수관행에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특히 풍수설의 순수이론이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설화로서의 문학적 전개보다는 지술시행의 실제로써 전승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신앙적 관행이나 그 시행에 따른 사실 위주의 전달에 치중하고 있거나 신앙적 행위만을 언급하는 단편적인 사실 자체에 머물기 때문에 문학적 형상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떨어진다. 이는 곧 신앙적 측면이 문학적 측면보다 강화되어 나타남을 뜻한다.⁶²⁾

60)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652.

61)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253. 1095.

62) 신월균, 전계서, P.201.

이와 같은 실제적 신앙 관습은 풍수설에 의해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보완하거나 악운이 서린 지형에 대해 인위적인 조형물로 악운을 누르고 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 자연적으로 주어진 명당의 지기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명당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나 마을 공동체 등 집단적 양택 풍수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하기가 필수적인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풍수설이 성행하기 이전에 이미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鎮護를 위한 풍수塔, 補虛를 위한 造山, 防殺衛護를 위한 壓勝物’⁶³⁾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유형은 定住空間의 결함을 제거하고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려는 신앙적인 표현에서 비롯된다.⁶⁴⁾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형상화할 때 명당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된다.

이 유형의 설화는 육지에는 많은 데 제주에는 전혀 없다. 이는 아기장수형, 고종달형 등 실패형에서 보여 주고 있는 反 중앙권력 의지의 발현, 향토적 자존심의 발현 등과 대비적 상황 설정이라 해석된다. 즉 외지인, 중앙권력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항거하고 심지어는 적개적인 데까지 이르는 발상을 가지지만, 도내인 끼리는 인위적 조작에 의하여 남의 발복을 미리 차단하는 따위의 해악적 행위가 없었음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63) 村山智順, 전계서, P.276.

64) 장장식, 전계서, PP. 93-94.

3. 仲介者別 유형

개인의 길흉화복이 명당에 달려 있고 명당은 일반적으로 중개자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중개자 중심으로 한 설화가 흥미롭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풍수관념에서 명당획득이라는 행위의 궁극적 주체는 중개자 자신이다. 중개자가 명당을 인식하고 획득하는 것은 전문성을 띤 문제이므로 중개자의 성공과 실패, 중개자가 된 경위 등 중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어진다. 중개자는 지관, 지사, 풍수사 등의 용어로 쓰인다. 지관이나 지사는 지리에 능통한 사람이고 풍수사는 풍수술에 능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래의 의미는 같은 것이다.⁶⁵⁾ 여기서 중개자는 명당을 설정할 때 중개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1) 긍정적 중개자

긍정적 중개자는 지리에 통달하여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엮어지는 이야기인데 중개자의 비범성은 앞일에 대한 정확한 예견과 명당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1) 지리에 통달한 중개자

지리에 통달한 중개자는 여우의 구술을 탈취함으로써 지술을 획득하게 되는데 결국 지술을 도의 차원으로 인식하려는 처지에서 가능한 설화적 진실인데 천문과 지리를 통달할 수 있는 여건에서 실수로 지리만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합리적 해석’⁶⁶⁾을 피하고 있다.

65) 신월균, 전게서, P. 24.

66) 최래옥, 전게서, P.136.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신」⁶⁷⁾이 있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신이 서당가는 길에 여우가 둔갑한 처녀의 유혹을 받았다.
2. 서당 선생이 이신 보고 여의주(구슬)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3. 이신은 구슬을 삼키면서 땅을 보아 땅의 일에만 통달하게 되었다.

이 설화는 평범한 사람이 여우처녀의 여의주를 빼앗음으로써 초월적 능력을 얻어 지리에 통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거의가 민간에 널리 알려진 중개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신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름난 중개자의 이야기로 엮어진 것은 그의 뛰어난 지술을 뒷받침해주는 역할과 함께 설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얻은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신이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보았다면 천문에도 능통할 것이나 결과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아 지리에만 통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은 영원히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없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⁶⁸⁾

이와 유사한 유형은 「허미수 선생」⁶⁹⁾에서도 나타난다. 허미수 선생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관상을 보니 乞人之相이었다. 그래서 신부를 잘 맞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신부를 골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신부가 도중에 산봉우리에서 소변을 보는양 오래 앉았다 내려왔다. 집에 와서 신부의 얼굴을 보니 너무 못생겨 뒷방에 종과 같이 살도록 했다. 허미수 할아버지가 죽자 그 산봉우리에 묘를 쓰고 허미수를 낳았다. 그 후 허미수가 장성하여 미리 일어날 일을 잘 아는 지리에 통달한 중개자가 되었다.

67)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게서, P.77.

68) 신월균, 전게서, P. 83.

69)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게서, P.178.

(2)능력을 발휘하는 중개자.

능력을 발휘하는 중개자형 설화는 획득한 기술을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중개자의 능력과 활약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능력 있는 중개자의 말을 어겨 패가 망신한다거나 능력을 발휘한 중개자 덕택에 명당에 묘를 쓰고 후손들이 번성한다든지, 멸망지지에 묘를 잘못 쓰지만 신이한 능력을 발현하는 중개자가 묘를 이장시킴으로써 발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침서」⁷⁰⁾가 있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침서, 임씨, 이씨 삼인이 배를 타고 제주에 온다.
2. 지침서가 신안이어서 명당자리를 잘 본다.
3. 세 사람 가운데 먼저 죽은 자를 명당에 묻기로 하였다.
4. 이씨가 죽자 그 곳에 장사 지냈다.
5. 그 후 이씨 후손들이 번성하였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중개자 덕택에 명당에 묘를 쓰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서 지술시행 결과 발복한다는 당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이 밖에도 모두 5편이 있다. 이를 중개자의 예견, 주체자의 행위, 그리고 그 결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0)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226.

〈 표 3 〉

능력을 발휘하는 중개자

제 목	중개자의 예견	주체자의 행위	결 과
가시나물 김선생 ⁷¹⁾	멸망지지	명당 자리에 이장함.	높은 벼슬을 함.
오훈장과 정지 관 ⁷²⁾	잣밖의 명당자리	명당 자리에 묘를 씌.	안씨 집안 흥함.
도원리 강훈장 ⁷³⁾	명당자리	명당 자리에 묘를 씌.	진사가 됨.
지지관 ⁷⁴⁾	문장 지필형	명당 자리에 묘를 씌.	후손이 글을 잘함.
고전적 ⁷⁵⁾	명당 자리가 아님.	고전적을 감옥에 가둠.	전적 칭호

이제 이들 설화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시나물 김선생」: 광산 김씨가 육지로 가서 대감 아들을 가르쳤다.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억센 아들을 과거에 급제하게 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선생을 찾았으나 돌아 가셨다. 묘를 찾고 보니 滅亡之地였다. 중개자들을 불러모아 명당 자리로 이장시켰다.

「오훈장과 정지관」: 오훈장은 정지관의 선생이다. 정씨집에 喪이 나자 오훈장과 정지관이 묘터를 보러 갔는데 오훈장은 잣안의 명당이라 하고 정지관은 잣밖의 명당이라

71)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 138.

72)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전계서, P. 493.

73)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상계서, P. 614.

74)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상계서, P. 747.

75) 현용준·김영돈, 대계 9-3, 상계서, P. 1105.

했다. 안씨는 정씨집 머슴이었는데 喪을 당하자 정지관이 정해준 잣박에 묘를 쓴다.

그 후 안씨 집안은 매우 흥하고 정씨 집안은 쇠해졌다.

「도원리 강훈장」: 유명한 중개자였다. 부인이 죽자 명당에 묘를 설정한다. 그 후 진사가 되었다.

「지지관」: 지씨, 이씨, 임씨 세사람이 형제 의리를 맺고 제주에 왔다. 나이가 들자 묘 쓸 곳을 설정해 둔다. 이씨, 임씨가 먼저 죽자 명당에 묻고 또 이씨 장남이 먼저 죽으므로 지씨 묻힐 곳에 묻는다. 지씨는 남의 명당 자리를 봐 주고 정작 자신은 묻힐 곳이 없음을 안타까와 하다가 결국 “문장지필형”의 자리에 묘를 쓰게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글을 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전적」: 고흥진이란 아전이었다. 명도암 선생에게서 지리를 공부하여 지리에 능통한 중개자가 된다. 명도암 선생은 과거 보러 갔다가 소牧仕가 성씨를 잘못 쓴 것을 고쳐 준다. 소 목사는 사또가 되어 명도암 선생의 은혜를 갚고자 찾았으나 돌아가셨다. 산소에 가보니 명당이 아니어서 고흥진을 옥에 가둔다. 고흥진은 양반이 아니어서 눈비 올 때 밖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복수로 명당이 아닌 곳에 선생을 묻었던 것이다. 소 목사가 명도암 선생을 명당으로 이장한다. 그 후 고흥진이 소 목사의 꿈 해몽을 잘하여 위기에서 구해준다. 그 댓가로 고흥진은 평생 소원인 전적의 벼슬을 얻어 양반이 된다.

이 유형은 멸망지지, 잣박의 명당, 문장지필형 등 중개자의 예견에 의해 주체자가 명당에 묘를 쓰거나 이장함으로써 집안이 흥하고 높은 벼슬을 하거나 후손이 글을 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전적이라는 중개자는 명당자리가 아닌 곳에 명도암 선생을 묻음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 후 사또의 꿈을 해몽해 준 댓가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전적(능력있는 중개자)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변이

되고 있다.

2) 부정적 중개자

초월적 능력을 지닌 중개자의 행위를 모방하여 의도적으로 부정적 중개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부정적 중개자는 풍수에 대한 기능이나 예비지식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명당을 설정해 준다.

부정적 중개자의 주체는 자신을 위한 명당 설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명당 설정을 한다. 따라서 부정적 중개자의 행위는 무턱대고 명당을 잡아주는 데 이야기의 초점이 놓이게 된다. 즉 묘를 아무 곳에나 선정하며 이런 일은 중개자의 신이한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경험이나 능력도 없이 무턱대고 해결하려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 중개자는 낯선 곳을 배회하다가 일정한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과업은 주인공의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무계획적이고 저돌적인 모험에 의해 해결된다.

이 유형의 설화는 「광령 현별감네 백정 무덤」⁷⁶⁾ 1편뿐이다. 서사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씨 집에서 백정이 날 곳에 묘를 쓴다.
2. 그 자손이 백정이 되었다.
3. 가운이 기울어져 망했다.

「광령 현별감네 백정 무덤」은 분에 넘치는 과욕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므로 항상 安

76) 현용준·김영돈, 대계 9-2, 전계서, P.67.

分知足해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이야기이다. 광령김씨 집에 喪이 나자, 중개자를 데려다가 묘자리를 설정하고 ‘留念之地’에 土積(히트 封墳)을 하였다. 사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토적을 보고 김씨를 불러다가 백정날 지형이니 묘를 쓰지 못하게 하고 壯元할 명당 자리를 설정해 준다. 이웃에 사는 현씨가 전에 김씨 집에서 토적한 묘 자리가 탐이 나서 달라고한다. 그곳에 현씨 조상의 묘를 이장시킨다. 그 후에 현씨집 아들이 명절에 쓸 재물로 소를 잡으러 하자 부친이 말리니 부친까지도 죽이려 든다. 이에 현씨는 ‘집안이 망했구나’하고 통탄해 했다는 설화이다.

Ⅳ. 제주 풍수설화의 서사구조

앞 장에서 풍수설화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유형을 나누고 분석해 보았다. 이제 이를 토대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서사구조적 특성과 사회사적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서사구조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건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다. 풍수설화의 성격상 등장인물은 대개 명당을 설정해 주는 중개자와 명당에 묻히는 주체자, 그리고 명당에 시신을 묻거나 주체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객체자를 통해 발복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 명당은 설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발복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대응 태세 및 해결과정을 통해 작품 속에 내재한 의미와 상징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과정 및 결과를 통해 서사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의미분석을 하여 전승집단의 시각과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구조적 특성

구조적 특성은 선행·발복 구조, 목적 우위 구조, 금기 위반·재난 구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각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 드러나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찰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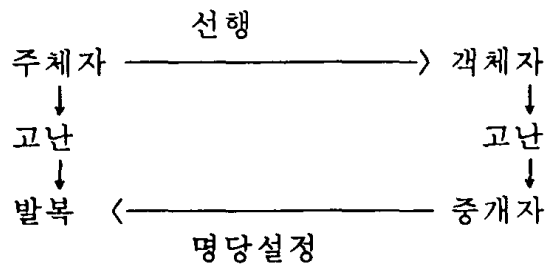
1) 선행·발복 구조

이 구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 등의 ‘베풀고 얻는 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장가간 첫날밤 남편은 매우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날밤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남편은 아기 낳은 사실을 감추고 자기가 주워온 것으로 소문내고 키운다. 아이가 자라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집을 떠난다. 아이의 떠남은 평범한 가정생활로부터 벗어나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되며 고난의 생활은 중개자로 변신하는 동기가 된다.

아들이 장성하여 중국에 가서 풍수지리를 공부한다. 의붓아버지가 죽자 유명한 중개자가 되어 나타나 아버지 은혜를 갚으려고 명당을 설정 했으나, 형제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형제들 몰래 이장하여 명당에 묻는다. 그 결과 집안이 번창하였다. 이 유형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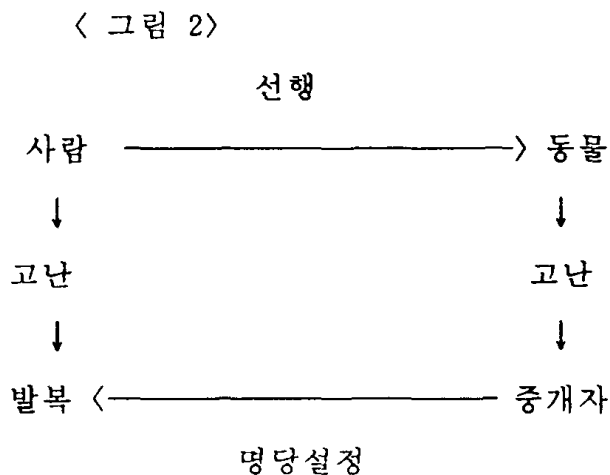
주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양육한다. 객체자는 고난을 무릎쓰고 중개자가 되어 나타나 그 보답으로 명당을 잡아주어 발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체자의 선행에 관한 비밀이 밝혀지며 객체자는 평범한 인간으로 부터 벗어나 異人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객체자가 이인이 되어 주체자에게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객체자가 바로 중개자가 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장애는 선행을 베풀고 그 보답으로 명당을 얻는 者 사이에 일어난다. 객체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주체자는 객체자의 고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고난을 해결해 준다. 이때 주체자의 양육

과 중개자의 명당 지시 행위가 중요한 구성 요소로 부각된다. 여기에서 객체자의 고난 해결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야기의 소재가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 결과 주체자와 객체자의 무관했던 관계가 선행을 베풀고 그 댓가로 명당을 얻음으로써 발복에 이르는 계기가 된다. 즉 주체자가 명당에 묻힌 후 발복하여 후손들이 출세하고 가문이 번창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자와 객체자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체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주체자에게 은혜를 갚는 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체자 자손과 집안에 번영을 가져온다. 객체자는 주체자와의 관계단절을 주체자의 자손들과 이어져서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이 설화의 의미가 있다. 자연 환경이 어려운 제주도 같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미를 내포한 교훈적 이야기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경우도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인이 동물을 길렀다. 주인이 죽자 개는 갇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명당 자리를 발견하고 돌아와 그 곳에 주인을 묻음으로써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람은 동물에게 은혜를 베풀으로써 동물은 그 보은으로 명당을 설정해 주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있으면서 동물을 도와준다. 그 행위는 외형상으로 보기에 하찮은 것이지만 수혜자에게는 최대의 적선 행위로 그것이 동물까지도 감동시키고 동물이 제공하는 명당은 곧바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동물은 공포의 대상이나 미물로서의 관념을 넘어서 신이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주체자가 신이로운 동물을 만난다는 것은 우연적이고 운명론적이다. 비록 동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베풀면 베풀 결과에 의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신앙처럼 믿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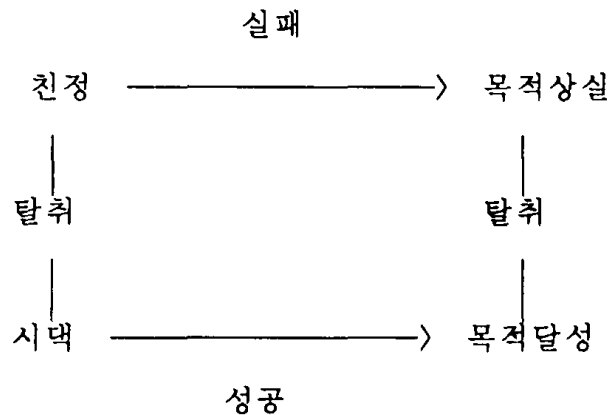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 사이는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며 교감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은 일방적 혜택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친화하여 공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동물이지만 적덕이나 적선을 행하면 그 결과 복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적 구조가 전승되고 있다고 하겠다.

2) 목적 우위 구조

이러한 구조는 '빼앗는 형'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친정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당을 설정하고 아들을 불러 유언할 때 딸이 몰래 엿듣고 시아버지가 먼저 죽자 그곳에 묻는다. 그 결과 친정은 명당을 잃게 되어 목적을 상실하고 실패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객체자는 명당을 탈취하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여기에서는 친정 아버지의 명당은 친정 쪽의 발복을 가져오는 반면, 시집간 딸에게는 그 감응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딸은 부계혈족에서 제외된다는 가부장적 관념 때문이다. 따라서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시아버지를 그 곳에 묻음으로써 시집쪽이 번성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것이 시집쪽 가문이 사는 길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딸의 행위가 정당화 된다. 그러므로 빼앗는 형 설화는 명당을 통한 가문 번성의 의지와 함께 그것을 위해서는 혈연도 저버리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의 명당 입자는 결국 명당을 상실하게 되고 제 삼자가 명당을 얻음으로써 주인공이 된다. 이 유형은 한결같이 빼앗아 쓴 쪽이 빼앗긴 쪽보다 번창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지혜를 써서 명당을 빼앗은 행위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부정적 중개자형 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설화가 반드시 선·악의 가치기준에 의해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든 설화에서 도덕적 가치기준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권선징악과 같은 가치지향적 주제가 뒷받침되는 면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로 유형

화 하였을 때의 윤리와 규범의 틀에 비한다면 인간본성이 표현과 욕망의 실현에 훨씬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친정의 명당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기집의 번영일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주는 결과가 된다. 시집간 딸의 목적은 명당을 차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명당은 타인의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여기에 시집간 딸의 고민이 나타나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게 된다. 시집간 딸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며, 그 지혜는 경제적 안정을 통한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명당을 빼앗은 딸은 목적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 반대로 친정은 가운이 기울어져 망하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예상밖의 일은 시집간 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남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 선악의 가치기준으로 본다면 시집간 딸의 행위는 윤리와 규범의 틀을 벗어난 행위이다. 그와 반대로 시집간 집에서는 정황이 다르다. 시댁은 가난하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시댁은 며느리의 역할에 기대하게 되고 그 역할은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시집간 딸이 벌이는 일련의 행위는 초월적이며 神格인 성격을 띠고 행동하며 그 결과 친가와 시댁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역전된다.

이와 같이 목적 우위적 구조의 설화는 운명을 개척한다는 견지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 된다고 하는 반 이성적 사고를 근거에 깔고 있어서 부정적 심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설화이다.

이 설화에서도 제주도적 특색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성의 활동상이 그것이다. 적극적인 여성형으로써 친정보다 시집이 우선된 것이 당연하며 명당을 차지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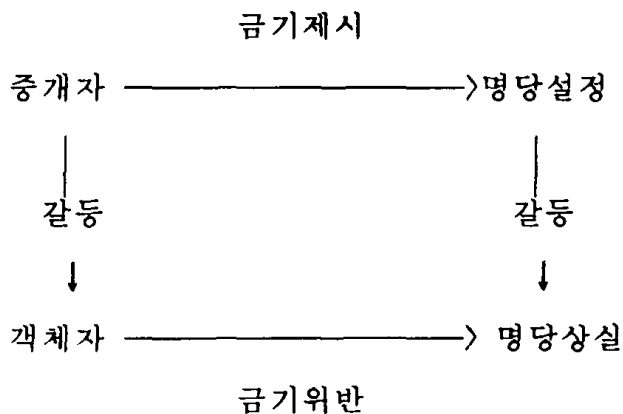
그 感應이 자신과 자식에게도 미친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3) 금기 위반 · 재난 구조

이는 '실패형'중 '금기 위반형'에만 나타나는 구조이다.

객체자는 중개자에게 명당자리를 부탁한다. 중개자는 객체자의 운명으로 인하여 명당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객체자는 간절히 명당자리를 요구한다. 중개자는 금기로 '이장할때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말고 지키고 있다가 돌이 나오더라도 파내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하면서 명당을 설정해 준다. 묘를 이장할 때 헛것을 본 사위가 군수가 조문 왔다고 한다. 객체자는 조문 받기위해 자리를 뜬다. 이때 사위들이 돌을 파내고 묘를 써야 된다고 돌을 파내어 버린다. 그 결과 명당을 상실하게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된다. 이 유형을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금기로 “돌을 파내지 말라”라는 말은 풍수설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돌이 나오면 파내고 흙을 고르게 하여 묘를 쓰는 것이 상식인데 돌을 파내지 말라고 함으로써 보편성을 거스른다. 보편적 원리나 인간적 속성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이라면 굳이 별도의 금기가 제시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성과 대립된 특수한 제약이 필요할 때 금기의 기능이 요구된다.

주인공의 갈등은 인간의 내부에 공존하는 대립된 두 가지 의식 사이의 갈등이다. 동일된 대상에 대한 정반대의 의식인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타적 인식이다. 이런 대립된 감정 사이의 갈등 결과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배타적 감정이 우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배타적 감정이 우세한 이유는 명당 발복 설화의 한계를 의미하며 금기가 인간의 욕심과 대립되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욕망이 갈등하게 되고 끝내는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욕망의 절제가 어려운 인간의 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금기설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갈등은 인간이 택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금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개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자기 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개자(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중개자가 명당을 통해 인간이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는 異人的 면모를 생각할 때 중개자가 제시한 금기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 또는 평범성을 벗어난 것으로써 모두 자기 극복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자기 극복에 대립하여 현실적 욕망과 본능의 한계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금기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의 갈등 결과 금기를 위반하게 되어 명당 발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사회사적 의미

제주도 풍수설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라는 특수한 인문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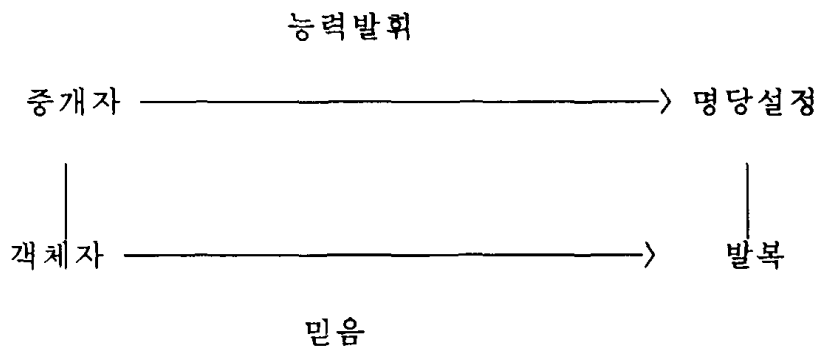
환경 속에서 생성되어 왔다. 여기서는 풍수 설화가 제주도민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존재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사회사적 시각에서 고찰해 가려 한다. 이 문제 역시 앞서 살펴본 각 유형과 관련하여 특히 부각되는 면이 강하므로 관련 유형과 연계하여 천착토록 하겠다.

1) 초월적 능력의 발휘

'능력을 발휘하는 중개자'를 보면 초월적 능력의 발휘에 대한 제주도민의 간절한 소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줄거리를 다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범한 사람이 서당 선생의 가르침으로 여우로 둔갑한 처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우 구슬을 빼앗음으로 땅의 일에 능통하는 초월적 능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객체자는 중개자의 능력을 믿고 명당에 묘를 쓰고 발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중개자가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이름을 얻거나 명성을 떨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비록 역사적 실존 인물이거나 무명 인물이거나 간에 그들은 이야기의 행위 주체를 맡으면서 사건의 전개를 이룬다. 따라서 행위주체인 중개자의 비중이 커지고 이야기의 진술 핵심이 중개자의 초월적 능력 발휘에 집중되는 까닭에 내용이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다.

중개자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명당을 설정하며 객체자는 중개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명당에 장사지낸다. 그 결과 집안이 번성하고 벼슬까지 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설화는 주로 경이감이나 숭고미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중개자의 능력 발휘는 중개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근거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잣밖의 명당자리라든가 문장지필형의 묘를 써서 집안이 흥하고 그 후손이 글을 잘하게 되는 등 모두 객체자가 중개자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믿음은 중개자가 명당을 설정해 준 곳에 묘를 씌으로써 발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개자의 예견이 적중하여 이야기가 중개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풍수적 사고는 일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것이며 중개자의 초월적 능력에 의지하려는 전승집단의 무의식의 표출로 여겨진다. 중개자가 명당을 설정할 때 규범적 인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고에 의하여 기발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제주에는 본토와 격리되어 있으며 자연적 환경요인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어려운 곳이다. 제주인은 이러한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잘 살아 보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초월적 능력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그것은 명당자리를 잘 찾아 묘를 씌으로써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구복 신앙의 차원으로 발전한다.

2) 지배자 · 피지배자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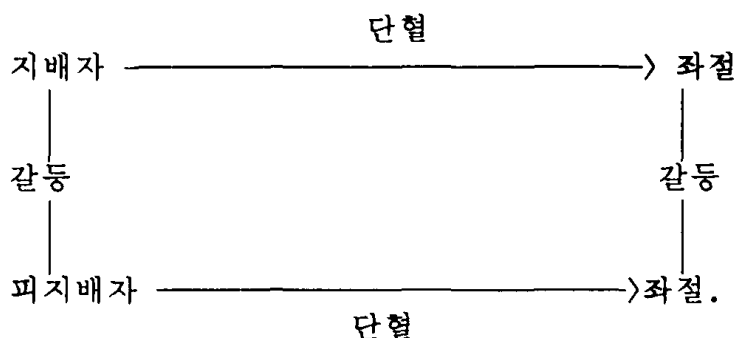
문학작품은 인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인물과 그 피지배자인 대상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이때에 작품 전체의 중심이 되는 지배적인 인물을 지배자라 한다면 그 인물의 인식과 행동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피지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자는 안정과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들이고, 피지배자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주변 인물들이다. 그런데 한 편의 설화에 반드시 하나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

니다. 지배자가 민중일 수도 있고 지배층인 왕이나 상층민일 수도 있어 흥미롭다. 또 고난과 억압받는 자가 혈 끓기를 하거나 다른 제 삼의 인물이 할 경우도 있는데, 그 결과는 혈 끓기를 할 때 지배자들의 욕구를 성취시키거나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구조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아기 장수형'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 제시한다.

강정 김씨가 오공혈에 묘를 쓰고 날개 돋은 쌍둥이를 낳았다. 부부가 쌍둥이를 눕혀 놓고 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아기가 눕혔던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 이상히 여겨 숨어서 보니 아기가 공중으로 뛰어 다니는 것이었다. 아기장수가 태어난것을 안 부부는 滅族之禍를 두려워 하여 부모의 묘를 이장 시킨다. 그 결과 아기 장수가 죽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유형을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아기장수형은 영웅 출현에 대한 불안감으로 혈 끓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갈등하게 되며 그 결과 좌절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설화에서 사건전개의 갈등요소는 영웅 출현에 있다. 억압받는 민중의 구원자로서 장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문의 번성을 의미하며, 그 지역이 왕후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현재의 비극적인 처지를 승화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웅의 출현은 지배자에 대한 도전 행위이므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데 갈등이 구체화 된다.

날개 돋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민중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적으로는 지배자에 대한 도전이므로 그만큼 비극적인 상황의 갈등도 강해진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책으로 피지배자는 묘를 이장시킨다. 그 결과 아기장수가 죽는 비운을 맞는다. 이 때 피지배자는 좌절하게 되는데 그 극복이 적극적인 것이 못하고 체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영웅 출현이 좌절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것 만은 아니고 혜택받지 못한 자연적 현실 여건을 승화하여 생활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고난과 현실을 극복하여 왔다. 이러한 현실생활에 대한 고난 해결의 집념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도민 전체를 단결하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현실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단결의식은 아기장수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서는 개인 스스로 혈 끓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힘 센 역적이 나는 것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아기장수의 힘줄을 끊는 행위를 당연한 숙명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서슴치 않고 실행한다.

아기장수형은 제주민의 저항과 좌절의 역사적 체험을 담고 있다. 중개자의 예견에 따라 명당에 묘를 쓴 결과 날개 돋힌 아이가 태어난다. 국가, 부모 등이 묘를 파헤쳐서 장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뛰어난 인물의 출현을 기다리는 민중의 갈망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여건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도의 아기장수형은 본토와 다른 양상으로 변이되고 있다. 그 변

이의 특징은 아기장수형이 지니는 비극성이 상당히 극복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의 경우 자식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도 부모는 힘줄만을 끊어 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 결과 아기장수는 힘줄만 끊겼을 뿐 아기가 자라서 역적을 잡음으로 찰방이라는 직함을 얻는다. 이것은 아기장수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도민을 위하여는 힘센 장수의 역할을 다한다는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유형은 현실과 화합을 하면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수용하고 순응하려는 설화적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섬이라는 지리적 絶離性과 역사적 시련때문에 고난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장수가 태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므로써 어려운 여건을 수용하려는 제주민의 단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고종달형’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주에 있는 「화북리 행기물」, 「영평리 수세못」, 「토산리 거스샘」 설화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종달리라는 지명이 고종달 이름과 동일한 데서 왕이 날 지세임을 확신시켜 주어 제주도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주는 현실적으로 인물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물이 날 수 없다고 해서 인물 출현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주인은 고종달의 혈 끊기를 통하여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것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왕후지지의 자부심을 갖고 현실을 숙명적으로 받아 들이려고 했다. 즉 제주인은 고종달을 내세운 이야기(허구)를 통하여 代償的 滿足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화북리 행기물」, 「서흥리 샘이물」, 「토산리 거스샘」 설화는 水神(물귀신, 물할망, 처녀)의 기민한 행동과 농부[민중]의 재치에 의해 斷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해서 제주민이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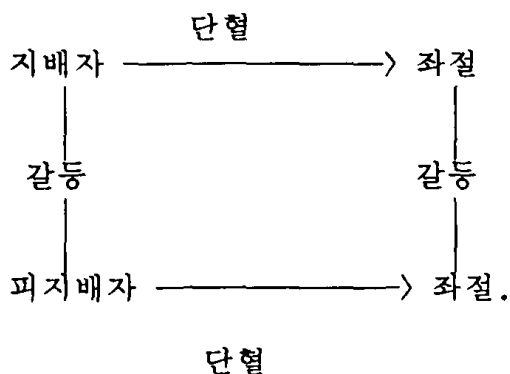
「반디기뻐」설화는 경주김씨라는 특정 인물을 내세워 고종달이 혈 쪼개기를 하는데 실패하도록 하여 외세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제주민의 공동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胡宗杲과 遮歸島」설화는 고종달이 혈 쪼개기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 가다가 한라산 수호신이 폭풍으로 변하여 배를 전복시킴으로써 강자에 대한 제주인의 강인한 저항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설화는 화소가 덧붙여지면서 변형되는데 「화북리 행기물」, 「영평리 수세못」, 「토산리 거스샘」설화는 종달리와 고종달이 명칭의 유사성에서, 「화북리 행기물」, 「서흥리 샘이물」, 「영평리수세못」, 「토산리 거스샘」설화는 샘이 귀한데도 샘을 갖고 있다는 지질적 조건에서, 「반디기뻐」설화는 명당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에서, 「遮歸島」설화는 「遮歸」라는 지명과 그 상황에 따라 각각 변형되었다.

고종달형 설화의 갈등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고종달형 설화에서 사건전개의 갈등 요소는 제주가 왕후지지라는 데 있다. 제주가 왕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땅이지만 그 복을 받아 들일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은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이고 조화 균형의 의지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중국왕의 걱정 거리가 되는데 갈등은 구체화 된다. 고종달이 중국왕이 보낸 증개자라는 것은 제주가 한 국가 단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 제주는 왕후지지로서의 의미가 돋보이게 되며 그만큼 비극적인 상황도 극심하게 된다. 또한 갈등의 상대 세력이 대국인 중국이면서 진시왕이라는 데 제주의 왕후지지의 의미는 강해지며 그만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도 강해진다.

고종달형 설화는 제주지역의 유기체적인 기관이 되면서 제주 문화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설화가 지역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생성, 성장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기능을 행사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민중이 당했던 고난을 설화를 통해 정신적 극복을 시도한 것은 이땅에 인물이 날 것을 우려하여 지배자에 의해 인물이 날 곳에 혈 끓기를 시도한 사실은 민중의 입장에서 인물이 나지 않음을 합리화한 것이며 또 그것은 국난을 타개할 인물이나 장사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민중의 갈망이다.

이제까지 갈등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고종달형 설화는 두 갈등요소로 되어 있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에서 갈등 결과 좌절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겠다. 고종달형은 좌절과 실패가 설화적 인물을 통해 비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종달형 설화는 내면에 역사적으로 입은 민중의 피해에 대해 정신적 상황으로 보상받으려는 설화적 의도인 代償的 만족이 짙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종달형 설화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지역, 민족과 타민족의 갈등관계가 실제생활 속에서 풍수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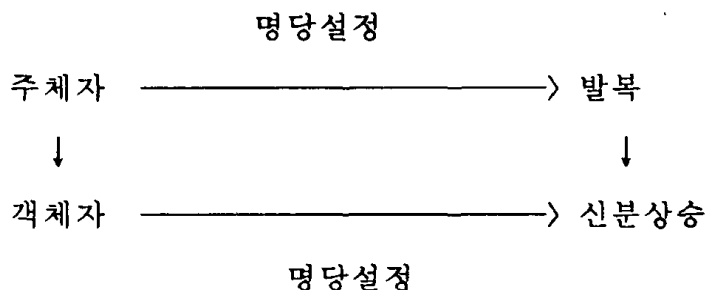
고종달형 설화는 우리생활 속에서 자신의 갈등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가족, 마을, 도민을 한데 묶는 구실도 한다 하겠다. 결국 고종달형 설화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적 사실로 받아들여 조화, 안정,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승집단의 산물이며, 의식의 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

변방의 섬 속에 소외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계급적 규제 속에 매몰되어 있던 백성들은 이야기 속에서나마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을 것이다. 모든 유형들 속에서 이러한 의식이 표출되고 있으나 특히 ‘악령 퇴치형’을 통해서 그 전형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목신을 이긴 며느리」는 며느리가 시집 오는 도중에 신랑보고 놀다가자 하며 행락객과 춤추며 논다. 집에 와서는 목신을 도끼로 찍어 버린다. 시아버지가 돌아 가시자 명당 자리를 찾다가 ‘산이 한자만 낮아도 좋겠다’는 중개자의 말을 듣고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산을 깎으려 한다. 이 때 하늘의 도움으로 벼락이 치고 산이 깎여 그 곳에 시아버지를 묻고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그 뒤 시주 받으러 온 중에게 무례하게 하여 아들 둘을 잃는 비운을 맞는다. 또 중이 찾아 오자 세째 아들을 중에게 던진다. 중이 놀라 아들을 두고 간다. 결국 며느리의 강한 의지는 중을 굴복 시키고, 악령인 목신도 복수를 못하게 한다. 그 결과 세째 아들이 장성하여 팔도 조병사가 되고 富를 누리게 되었다는 설화이다. 이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신분 상승의 목적은 부와 권력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이 어떠한 하든간에 후손이 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신분상승은 발복의 효험에 중점을 둔 것이며, 우연한 기회에 명당을 알게되어 차지하거나 전 생을 통하여 명당을 찾아 이장하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명당이 설정되어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귀는 하늘이 정해 준다는 운명론적인 사고가 다분히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신분 상승은 미천한 신분이라는 장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풍수술을 통하여 이루어 보고자 하였는데, 주체자는 현세에서 못 이룬 꿈을 내세에서 성취시키고 객체자는 주체자를 통해 발복하기를 기원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명당설정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특히 제주인은 외세에 항상 억눌려 왔으며 그 대응책의 하나로써 정신적 면에서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미천한 여성을 강인한 여성으로 탈바꿈하여 등장시키며 그를 통해 자손이 고귀한 신분으로 변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인의 힘으로 악령을 퇴치하고 묘를 쓰게하여 발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신분상승담의 한 예로서 사대부들의 경직된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징적인 설화이다. 자기 아들이 들썩이나 죽는 상황속에서도 악령이나 악담에 굴하지 않고 회생을 감수하는 여성의 강한 의지는 일신의 편함보다 가문과 혈족의 부귀영화를 먼저 생각하는 혈족 중심의 사고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 행운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여성이 이용되었다는 것은 제주의 특성인 강한 여인상이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 풍수설화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도 풍수설화가 갖는 서사구조를 파악한 후 그 구조 속에 내재한 사회사적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제주도 풍수설화의 제특성을 추출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주도 풍수설화는 제주도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古來로부터 하나의 관습이 되어 신앙화 되었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자생하여 여러 형태로 변이 전승되고 있다. 현재도 정치적, 학문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가문에서는 명당의 은덕이라고 믿고 있으며 불행이 닥쳐 온 집안에서는 이장하기까지 하며 행복을 추구해 오고 있다.
2. 제주도 풍수 설화는 배풀고 얻는 형, 빼앗는 형, 악령 퇴치형, 卽時 발복형, 待時 발복형, 금기 위반형, 아기 장수형, 고종달형 등이 있다.
3. 「배풀고 얻는 형」은 인간의 積德과 선행을 배풀면 그 보은으로 명당을 얻고 발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유형이다. 또 이는 자연 환경의 불모지인 제주도 같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의미를 내포한 교훈적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명당 설정 동기와 과정이 인간의 행위와 의지를 강조 하고 있다.
4. 「빼앗는 형」은 명당을 빼앗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행위로 나타나며 지혜로 빼앗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당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은 경제적 안정과 富의 획득이며 명당 수용 과정에는 갖가지 방법과 지략이 동원되고 있어 이채롭다. 특히 딸이 친정의 명당을 빼앗는 행위는 운명을 개척한다는 견지에서 제주적 특색이 있으며 제주여성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려는 제주여성들의 활동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친정보다 시집이 우

선된다는 것이 당연하며 명당을 차지하면 자신과 자식에게도 그 감응이 미친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5. 「악령 퇴치형」은 주체자가 惡靈을 퇴치하고 명당에 묘를 씌으로써 발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체자의 강인한 정신이 내포되고 있다.

제주는 삼다의 섬이며 여성들의 노동력과 경제력은 제주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여성이 목신과의 대결을 이겨냄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가족사를 빛나게 하는 데서 제주여성의 강인함이 설화화 되었다고 하겠다.

6. 「即時發福型」은 묘를 쓰자마자 발복부터 한다는 이야기이다. 과부자식이라는 주인공의 결핍된 가정 환경과 결혼도 하지 못한 비극 위에 가난이라는 생활고까지 겹친 극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의 묘를 명당으로 이장시키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인이 등장하며, 여인에 의하여 결혼과 부가 동시에 충족된다. 이는 억척스런 제주여성의 노동력을 극대화한 제주 특유의 설화라 할 수 있다.

7. 「待時發福型」은 명당에 묘를 쓰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복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이 명당을 설정한 후에 집나간 말이 몇백 필이나 되는 많은 말을 데리고 옴으로써 부자가 되고 벼슬까지 하게 된다. 설화에 말이 등장하는 것은 제주적이며 말이 富의 상징으로 표상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8. 「금기 위반형」은 초월적 힘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된 설화형이다. 금기 파기는 곧 초월자의 말을 어김으로써 받아야 하는 형벌이다. 「소 牧使와 오댁묘」에서는 통인 오씨가 중개자에게 명당 설정을 간청하나 운명으로 발복이 어렵다고 하면서 금기를 제시한다. 그 결과 금기가 파기되어 橫厄된다. 이 설화에서는 제주는 자연환경이 금기를 생활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시사한 것이다.

9. 「아기 장수형」은 제주의 대표적 명당 설화 유형이다. 중개자에 의해 그 출생이 예

견된 아기장수가 막상 태어나자 장차 역적이 되어 집안과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묘를 파헤치거나 아기의 힘줄을 끊거나 없애 버린다. 그 결과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거세 당하거나 평범한 인간으로 산다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을 통해 제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장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려는 설화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고종달형」은 제주 지역만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고종달이라는 비역사적인 인물이 제주 곳곳에 혈을 끊어 제주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중국을 侵奪國으로 설정함으로써 외세에 대항한 제주민의 강인한 저항정신과 주체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립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11. 제주도 풍수설화는 지리적, 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공동체로서 제주 특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풍토의 불모성과 외세의 侵奪에 대한 報償행위로서 강인한 저항정신과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12. 이상으로 보아 제주도 풍수설화는 제주도민의 현실적 결핍 상황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대립과 갈등이 잘 표출되어 있다. 또한 풍수설화가 지닌 운명론적 생활관이 섬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운명에 도전하는 강인한 저항정신이 설화 속에 스며 들어 있으며 환경과 끊임없이 대결하면서 살아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 풍수설화의 유형과 서사구조를 천착함으로써 이의 제반 특성을 규명해 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 풍수설화 전반과 제주 풍수설화를 대비적으로 고찰해 갈 때 제주 풍수 설화의 설화 문학적 위상은 더욱 뚜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강중탁, 단맥형 설화의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15집, 1986.

——,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권정희, 풍수설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김열규·주옥, 민담학 개론, 서울 ; 일조각, 1982.

김태곤, 한국무속 연구, 서울 ; 집문당, 1981.

박서호, 한민족의 삶과 죽음의 정주공간에 대한 이론체계, 청목 27호, 대전 ; 한남
대, 1987.

손정희, 한국풍수설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신월균, 한국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1989.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0.

——,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서울 ; 삼성출판사, 1983.

이상일 외, 민담학 개설, 서울 ; 일조각, 1982.

이승녕,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이종항, 풍수지리설의 성행과 우리 민족에 미친 악영향에 관한 일고찰, 경희대논문
집 5집, 대구 ; 경북대학교, 1961.

이회덕 외, 「풍수지리」한국사상의 원천, 서울 ; 박영사, 1976.

임갑량,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 13집, 대구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정병욱 외 4인 편저, 한국고전문학정선, 아세아문화사, 1985.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조희웅 외 3인, 구비문학 개설, 서울 ; 일조각, 1971.

조희웅, 설화의 유형 및 분류, 한국구비문학선집, 서울 ; 일조각, 1977.

진성기, 제주도민과 풍수지리, 한국문화인류학 1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 남국의 민담, 형성출판사, 1982.

차주환, 한국도교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서울 ; 민음사, 1990.

최래옥, 한국풍수설화의 수용의미, 한국 일본의 설화연구, 인천대학교출판부, 1987.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 민음사, 1984.

현길언, 고종달(胡宗旦)설화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구조, 한국문화인류학 9집, 서울 ;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 풍수(斷脈)설화에 대한 일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10집, 서울 ; 한국문화인류학회, 1978.

——, 제주도 장수설화, 서울 ; 홍익사, 1981.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울;서문당, 1976.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9-2, 9-3, 한국정신문화원, 1980-1981.

현용준·현길언 편, 제주설화의 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高麗史

太祖實錄

太宗實錄

ABSTRACT

Subject a Study on Poong Soo Folk Tales in Cheju Iasland

by Kim Young Suc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
Graduate School of Educaition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In this thesis, Classity the types of Poong Soo theory among Poong Soo Folk Tales through the examinaton of the formational backgraound and the namire process of the theory. Mocrover, it deals with the nacrations stctural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the Poong-Soo theory, based on thesetypes. The summaries are following.

1. Poong Soo Folk Tales are spread over the whole Cheju Island, and have been custom and religion from ancient times. The Folk Tales evelop with strong vital energins and were transmittedin viuious lorms.

2. The study of Poong Soo Folk Tales about Cheju Island as a specific region in searce, Most of the studyhas been conducted piutly an dare limited to the classification of data and types.

3. Untill now the fanitly successiul in political, scientilic and economic fild believece Myoungkang(a good site) as the virtue, The family

snffecck from a mistortune exhuns to pursuc their happiness.

4. Tales about the type of giving and taking say it that people abtain happiness and get a goodside by giving the good abd vurtue, and this ytype give emphasis to will and behavlor of human beings.

5. Tales about the type of snatching is coneemal about only snatching good site and take cleverness as its form, also give cmphasis to steategy in accounting proecess of good site.

6. Tales about the type of slaying the evil say it that the chief slay the evil and thaem obtain happiness by making a grave in that place, and it conttains the strong sptit of the chicf.

7. Tales about the type of obtaining happiness at once say it that no sooner had pelppe a geave than they obtainal happiness as makertal wcalth.

For obtaining happiness, this story deats with the woman to get a chance of excalation of state and thus this story represent the androcnctric vule.

8. The followings are filure types. After estabilsing 'Myoungdang'(a good site), the cosult is failure or it has obtained happines broken up.

Behavior and will of humae rather than fatal element are megarded importantly in the failure types.

9. The folk tale about a type of seveding of 'Heol'(vigoe a invorable loeation where the spirits of the dragons are supposed to converge) is that a innetion of Myoungdang is lost by sevcring Heol of mountain an topogmpy.

The mason why they sever vigor is that they are afraid of a mlonted man being born. They mean countries, foreign and indivichal.

10. Tales about the type of mediators emphasize mediator's foresight and unusual abilities which correct the wrong site of a grave or select the propitious site for a grave. Namely, if a mediator takes the 'Yeowoo goosul'(Fox head), he can show marvelous abilities. At this time, the 'Fox head' is the symbol of excellent ability. A human in the order of nature draws supernatural mystery in his inside.

As mentioned above Poong Soo Folk Tales stick considerably to the lives of Cheju islanders through rational answer about actual situation, organic confronted disagreement is well expressed and fatal life is transformed into self pity. Through it, Poong-Soo Folk Tales with fatalistic view of life seems to dominate islanders. On the contrary, a strong spirit of resistance challenging the fate soaks the Folk Tales, which show that islanders have lived, confronting with the power of a foreign country constantly.

But from now on, comparing Poong-Soo Folk Tales in Cheju island with those in lands, we need to seek for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mperfect parts in meaning.